

귀국보고서

소속학과	경영학부	파견대학	미주리 주립대학교
학번		파견기간	17. 8. 15. ~ 18. 5. 12.
이름	오	프로그램	정규 √ / 학기제

※ 우수 귀국보고서 선정하여 국제교류본부 연수후기에 익명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가을학기는 봄학기부터 시작하는 학생들과 달리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방학동안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준비해야하는 것에는 크게 보험, 비자, 항공권, 예방접종, 짐 꾸리기 등이 있다.

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교환학생들에게 정보를 얻어 동부화재보험으로 신청하여 가입하게 되었고, 이처럼 교내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waiver에 가입한 보험의 조건을 상세히 입력/적용하여 외부 보험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한다. 출국 전 waiver 승인을 받으면 보험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변경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국 전 waiver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waiver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한국 보험 회사의 보험을 상세히 비교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은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약 30~40만원 정도 저렴했던 것 같다.

둘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비자이다. 비자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자가 비자 면접을 신청할 때 가장 가까운 면접 예정일은 신청일로부터 1~2주 뒤였고, 비자 면접 이후 약 4일 후에 집으로 비자 서류가 부착된 여권이 배송되었다.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출국 전까지 여유 있게 비자를 준비했다.

항공권의 경우, 왕복으로 예약하는 것이 저렴하여 여행사에서 왕복으로 예약하였다. 그러나 왕복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 기준으로 약 300일 후의 항공권까지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된다. 왕복으로 예약을 한 후에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편도로 출국항공권과 귀국항공권을 각각 따로 구입하는 것 보다 저렴하긴 하였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성수기에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귀국일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편도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음으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예방접종이 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거주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을 받은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결핵 검사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짐을 꾸리게 되는데 보통의 항공사의 경우 23kg짜리 짐을 무료로 체크인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짐을 챙길 때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나-2. 공항 - 학교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나-5. 교내·외 활동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시골 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물가가 대체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99.9% 영어를 사용하며 다른 언어를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 중부에 위치하여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폭이 크다. 일주일만에 사계절을 모두 경험한 적도 있는 날씨였다. 건조한 기후이지만 기온은 매우 높고 햇빛이 강렬하며, 가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한다.

미주리 주립대학교 세인트루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하고, 한국인의 비율이 적어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더욱 수월하고,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 택하게 되었다. 또한 수업이 충북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커리큘럼보다 훨씬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수업을 골라 듣는 재미가 있었다. 수강신청은 adviser와 약속을 잡아 시간표를 정하게 되며,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adviser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후 아무 수업이나 들어도 무관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기숙사는 메도우라는 곳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메도우는 국제학생들이 많이 사는 것이 특징으로, 초반에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자주 열려 친구를 사귀기에 좋았다. 4인실에 거주하였는데, 첫 학기때는 2명의 인도인 룸메이트와 1명의 미국인 룸메이트와 거주하였고, 마지막 학기 때는 1명의 인도인 룸메이트와 2명의 미국인 룸메이트와 거주하였다. 각자 방은 따로 쓰면서 거실과 부엌,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교내활동은 첫 학기 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친해지고 먼저 와있던 교환학생 언니, 오빠들의 추천으로 K-Pop 댄스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원어민 친구를 사귀어 영어실력을 향상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학교에서 자주 보게 되었고, 충북대학교의 신학생회관 같은 MSC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동아리 시간 이외에도 보면 시간을 자주 보내곤 했다. 영어 회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굳이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먼저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친구를 사귀는 경로는 다양하였던 것 같다. 또한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보통 미국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타 학교 학생도 메도우에 거주가 가능하였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룸메이트가 타학교 학생이었고, 룸메이트 덕분에 교외 활동에도 초대를 받아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생활하는데 꿀팁이 있다면 세인트루이스는 정말 모든 것이 흠어져 있는, 밀집되지 않은 지역이다. 모든 것이 멀리 있기 때문에 차가 없다면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그 짐을 들고 오는 것도 힘들었다. 첫 학기때는 아시안 마트/한인 마트를 갈 때 학교에서 지급하는 Metropass를 이용하여 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마트에 가는 것이 가능하였다. 두 번째 학기 때는 친해진 친구들이 항상 운전을 해주어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곤 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 봄방학 때 1주일 동안 라스베가스-그랜드캐니언 여행을 하였고, 학기 종료 후에는 1주일 간 서부를, 2주 간 동부를 여행하였다. 시카고는 버스를 이용하면 6~7시간이면 방문할 수 있으니 금, 토, 일 3일간 여행을 하기 좋은 지역인 것 같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내에도 Science Center, The Gateway Arch, City Museum, 공원, 미술관, 식물원, 야구장 등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거의 혼자 여행을 하였는데 여행을 하면서 밤에만 조심하고, 사람이 많은 관광지를 여행한다면 안전상 위험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그렇게 적응을 잘 하게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소통을 하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으며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욱 더 잘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첫 학기 때는 먼저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던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시간을 꽤 많이 보내다가 두 번째 학기때는 정말 저 혼자 남겨져 더 국제 친구들과 교류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비교하며 이해하려고 하던 노력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 녹아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와서 어색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소중한 기회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Language and World View라는 언어와 관련한 토론 수업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타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모여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매주 Essay숙제와 토론 숙제를 하다 보니 영어실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언어는 양립할 수 없는 특질을 갖고 있는데 문화를 알고 난 뒤에 언어를 적용하니 까 훨씬 소통이 수월하였습니다. 과제도 많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도 많은 수업이었지만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토론수업을 꼭 한번쯤 들길 제안합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